



아니나 윌러

여러 자아를 꾸며내기 (Making Up My Selves)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발달 능력을 기르기 위해 옷 갈아입기 놀이가 권장된다. 다 자라고 난 뒤엔 더 이상 흉내내기 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 그때쯤이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아라는 것이 가수 할시의 가사, 오래된 어린 시절 의상이 남긴 이런저런 잔여물, 대중문화의 클리셰로 이루어진 정교한 짜깁기에 불과하다면?

인터넷 포럼의 광활한 평원에서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풀어가는 조언을 구하다 보면, 기본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그냥 너답게 살아라(Just Be Yourself)

이 “그냥(just)”은 이 “자신(yourself)”이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하다는 함의를 간다. 그러나 이 진정한 자아가 어디서 끝나고 인공의 자아들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나 자신이 모른다면? 나의 진정한 형상이 정교한 콜라주로 잘려 나가, 수년치의 홀로그램 스티커, 반짝이 풀, 대중문화의 클리셰와 뒤섞여 있다면?

할시는 다섯 번째 스튜디오 앨범 《더 그레이트 임퍼소네이터(The Great Impersonator)》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들에게 노래를 한 곡씩 헌정한다. 제목이 시사하듯, 사운드와 비주얼 모두 그 인물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말이다. 돌리 파튼, 케이트 부시, 비요크, 데이비드 보위, 마릴린 먼로 등이다. 앨범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받았다. 비평가들은 할시에게 메인 캐릭터 신드롬(main character syndrome)이라는 혐의를 씌웠다.¹

(애정 어린 의미의) 메인 캐릭터 에너지와 (경멸적 의미의) 메인 캐릭터 에너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대중 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의 여러 사례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앤 해서웨이의 부상과 추락(과 재부상)이 좋은 예다. 커리어 초기에는 무척 인기 있었지만, 어느 순간 너무 도드라져 버렸고,

1. <https://www.youtube.com/watch?v=OKt-GE-pUXIA&t=393s>. Princess Weekes: Main Character Syndrome & The Authenticity Trap. 27.03.25. YouTube, 2024.



이른바 “해서헤이트(Hathahate)” 운동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도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 갑자기 무엇을 하든 옳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2013년 그녀가 첫 오스카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시작하며 감격에 차 “정말로 이루어졌어요(It came true!)”라고 외쳤을 때, 인터넷은 혐오의 물결로 폭발했다. 미소가 너무 환했고, 매너가 너무 다듬어져 있었고, 옷차림도 그랬다. 너무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고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던 서툰고 웃긴 제니퍼 로렌스와는 달리. 로렌스 역시 결국 너무 별나서 총애를 잃었지만.) 10년이 지난 뒤, 사람들은 “해서헤이트”를 돌아보며 어쩌면 약간 과한 반응이었을지 모른다는 걸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앤 해서웨이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이제는 미움받지도 우상화되지도 않았고, 존중받았다.

나는 이용 가치로 인지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이용 가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건 오직 나뿐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너는 한편, 딱 봐도 생각이 없고, 머리가 텅텅

너는 한편, 딱 봐도 조연 캐릭터의 에너지로

너는 한편, 딱 봐도 NPC

2010년대에 일어난 여성혐오적 독설의 또 다른 희생자는 메리 수 (Mary Sue)였다. “메리 수”는 팬 픽션 커뮤니티에서 비롯된 용어로, 비현실적으로 결점이 없는 여성 캐릭터를 가리킨다. 숨막히게 아름답고, 강하고, 모두가 그녀를 사랑하거나 그녀가 되고 싶어 한다. 메리 수는 작가가 자신을 대입하는 캐릭터로 알려져 있는데, 모든 걸 다 가졌으면 했던 삶을 대신 살아내게 해준다. 말 그대로 “메인 캐릭터 에너지”를 풍긴다. 2010년대에 팬 픽션 커뮤니티는 메리 수 캐릭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혐오로 변했다. 그런 캐릭터들을 검토하거나 조롱하는 데 헌신하는 《더 메리수 리뷰(The Marysue Review)》, 《더 메리 수 리해빌리테이션 센터(The Mary Sue Rehab Center)》 같은 블로그가 생겨났다.²

나는 메리 수를 존나게 사랑한다. 자, 어서 보여달라. 무지개와 반짝이를, 모든 초능력을. 삼각관계든, 사각관계든 전부 좋다! 오각, 육각,

2. <https://www.youtube.com/watch?v=XM-BEK-PP0sl.lzzyzzz>: The Weird World Of Mary Sues. 27.03.25. YouTube,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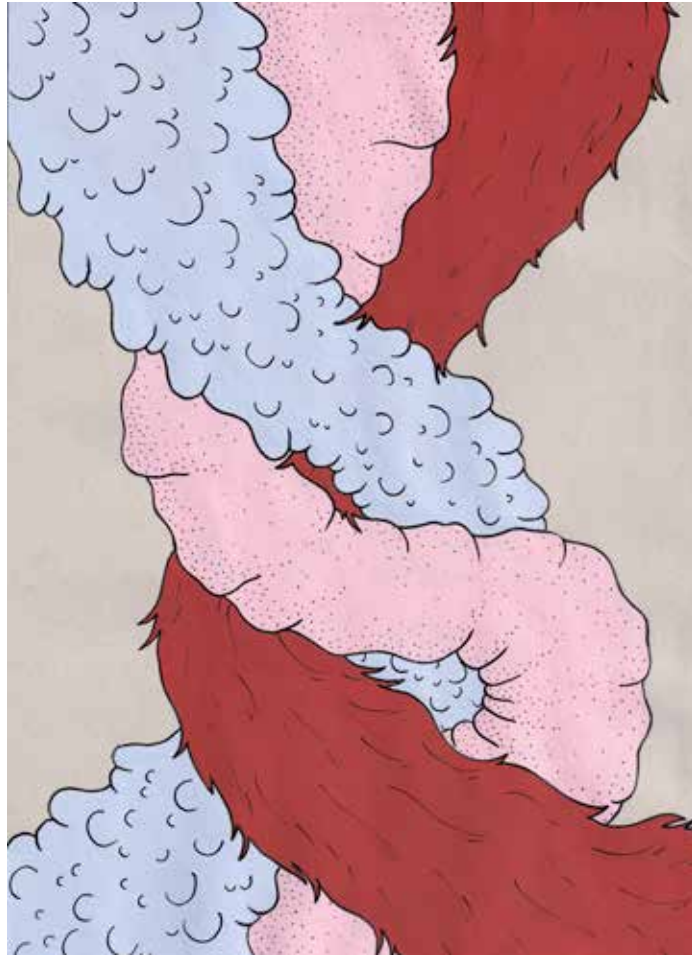


찰각, 팔각관계도 마찬가지로! 나는 순수함의 화신인 동시에 팜므 파탈이고 싶다.
비싼 드레스에 강제로 옥여넣어지고 싶다(마음 속으로는 그걸 좋아하면서
말이다). 칼이면서 동시에 지팡이이고 동시에 불타는 무기, 나쁜 의도를
가진 자에게만 상처를 입히는 그런 무기를 휘두르고 싶다. 새까만 몸체에
네온 핑크색 갈기를 가진 알리콘(alicorn) 위에 올라타 날아다니면서.

나는 클리셰를 사랑해

나는 클리셰를 모은다

그것을 눈덩이로 만들고,
단단히 다져서 완벽한 작은 구체로 만든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순들이,
궤도를 비틀고, 지나가는 사람들 정통으로 부딪쳐,
그들 모두를 영광스러운 메리 수로 만든다.

할시가〈시계태엽 오렌지(A Clockwork Orange)〉를 연기하는 지기
스타더스트를 연기하는 보위를 연기하는 케이트 부시를 연기한다



할시가 진 할로를 연기하는 마릴린 먼로를 연기한다

할시가 돌리 파튼을 연기하고,
돌리 파튼이 돌리 파튼을 연기한다

“나는 늘 ‘그녀’, 즉 돌리의 이미지를, 복화술사가 자기 인형을 다루듯 생각해. 그걸 즐겨. 올해는 그녀로 사람들을 어떻게 놀래줄까? 무엇을 입힐까? 무슨 말을 시킬까?”³

돌리 파튼은 커리어 내내 컨트리 음악에 존재해온 온갖 정형화된 여성 젠더 퍼포먼스에 개입해 그것을 비판하고 협상해왔다. 그녀는 처녀-창녀 이분법을 가지고 놀며, “정숙한 산골 처녀”와 “동네 잡년”을 한 페르소나에 결합시키고, 그 논쟁적 간극을 자각적이면서도 유희적인 방식으로 끌어 안는다. 자주 인용되는 그녀의 말이 있다. “나는 여자가 아니었다면 드래그 퀸이 되었을 거야.” 한번은 돌리 파튼이 돌리 파튼 닮은꼴 대회에 참가했다가—드래그 퀸한테 진 적도 있다.⁴

《루폴의 드래그 레이스: 올스타즈(RuPaul’s Drag Race All Stars)》 시즌 7이 메이 웨스트를 연기하는 돌리 파튼을 연기하는 돌리 파튼을 무대에 올린다

유치원 시절, 베이비 본(BABY Born) 인형을 받았다. 머리와 사지는 플라스틱이었고, 몸통은 부드러운 천에 솜이 채워져 있었다. 엄마(나)와 똑같은 갈색 눈을 했고, 똑바로 세우면 눈을 뜨고 눕히면 눈을 감았다(인형의 엄마,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와 똑같이!). 장난감 가게에 데려가 옷도 한 벌 더 고르도록 허락받았다. 실용적인 엄마였던 나는 베이비블루와 베이비핑크의 우비, 그것에 맞는 바지와 부츠를 골랐다. 할머니가 원숭이 봉제 인형에게 떠준 작은 목도리까지 벗겨, 털이 부족한 내 아이에게 돌려주었다.

여성을 연기하는 여자아이들

“본 섹시 예스터데이(Born sexy yesterday)”는 영화와 텔레비전의 클리셰로, 성인이면서 (거의 예외 없이) 여성인 캐릭터가 성적으로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순진하거나, 극단적 경우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제5원소(The Fifth Element)>의 릴루(Leeloo)가 한 예다. 그녀는 영화 시작 부분에서 창조되어 태어나며, 갓 마주한 SF 세계를 헤쳐나가야 하는데, 어른의 몸에

3. Edwards, Leigh H: Dolly Parton, Gender, and Country Music. Bloomington,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2018. p. 101.

4. 같은 책. pp. 2, 27-38.



붕대로 만든 섹시한 옷을 두르고 있다. 그녀는 자기 몸이 자라나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다. 사춘기는 그 몸에 이미 작용된 상태로, 그 골치 아픈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그녀의 몸은 이미 욕망의 대상이 될 상태에 있는데, 정작 마음은 아직 욕망할 줄 모른다. 완벽한 조합이다. 섹시하면서 순진한, 이용당하기에 알맞은 상태.

여자아이를 연기하는 여성들과 펌(femme, 여성성을 체현하는 사람)

여성 친구가 인스타그램 릴을 보내준다. “다이애나비의 발성 코치” (나이 든 영국 아저씨)가 자기 목소리를 찾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이다. 친구는 댓글을 단다. “ㅋㅋ 방금 봄. 나도 더 저음으로 더 본질적인 내 목소리로 말해야겠네.” 이 남자는 영상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격조 있는 인터뷰어에게 “우리는 우리 존재의 진정성에서 멀어졌다”고 말하며, 서구 사람들은 몸의 윗부분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인다. 그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 더 높고 비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를 인터뷰하는 여성은 그 모습에 웃음을 터뜨린다.

여성 그리고 여성성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좌우하기 위해 목소리를 바꾼 사례는 많다. 마거릿 대처는 더 권위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엄격한 발성 코칭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혈액 검사로 사기를 친 회사 테라노스의 전 CEO 엘리자베스 홈즈는 굵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나중에는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목소리를 꾸며냈다는 걸 인정했다.

남성을 연기하는 여성들

패리스 힐튼은 베이비 보이스를 극단까지 밀어붙인다. 그녀는 목소리가 자신이 만들어낸 캐릭터의 일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리얼리티 TV쇼 <심플 라이프(The Simple Life)>를 위한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겪은 학대의 트라우마를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였다. <잭 생 쇼(The Zach Sang Show)>에서는 2000년대에 금발이 골빈 사람이라는 이미지와 결부되어 있었고 멍청한 게 귀엽다고 여겨졌기에 그 게임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멍청한 척 연기하는 펌

나는 옷 갈아입기 놀이를 좋아한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렸을 적 가장 좋아한 소일거리는 부모의 낡은 옷, 지난 카니발 의상들,



잡다한 천 조각들로 가득 찬 트렁크를 뒤지는 일이었다. 그리고는 정교한 차림을 골라 입었다. 파혼당한 신부에서, 거만한 치어리더 대장으로, 흡혈귀의 시선을 사로잡는 수더분한 톰보이로, 사악한 어둠과 맞서 싸우는 반짝이 요정으로, 아이가 처음 등교하는 날 눈물을 닦으며 바라보는 엄마로. 이 충동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외출할 때는 친구들에게 분신을 하나씩 만들어보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요즘은 매우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머릿속에 담은 어린아이가 나를 입혀놓은 듯한 차림을 좋아한다. 가십을 좀 과하게 즐기는 멍한 비서, 뱃멀미를 하는 해적, 또는 가족의 복수를 위해 인간 형상을 띤 재규어 같은.

이런 연기적인 성향이 화려한 과잉보상은 아닐까 늘 궁금했다. 내게 정체성 감각이 부족한 걸까? 스스로의 불안에서 도망치는 걸까? 관심을 갈구하며 외치고 있는 걸까? 분명 어떤 시점에는 그랬을 것이다. 그렇다고 화려함이 가짜이고 인공적이라는 발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 의견은 그 반대편의 존재, 즉 진정한 것, 자연스러운 것, 진짜인 것, “정상인 것”의 존재를 암시한다. 그러나 오늘날 정상으로 여겨지는 것 또한 구성된 무언가다. 분홍은 한때 남자아이의 색이었고, 하이힐은 처음 남자가 신었고 등등. 그렇다면 자신의 젠더에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은 노미(normie)에 비해, 젠더 퍼포먼스의 부조리함을 부각시키는 드래그 아티스트가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것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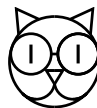
“진정한 자아”가 존재하는지 어떤지 누가 신경 쓰겠는가.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면, 가끔은 양증맞고 귀여운 드레스를 입기를 즐길 게 분명하다. 나는 내 드레스를 반짝이 장신구와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으로 꾸미고, 그 차림으로 활보하는 걸을 사랑한다. 일생 동안 모은 기념품들로 터질 듯 가득 채우고 싶다. 결국 촌스러운 피규어, 부착식 콧수염, 싸구려 향수 빈 병들이 흘러넘쳐, 관심종자가 될 누군가가 주워 갈 수 있도록.



저자 소개

아니나 뮐러는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활동한다. 바젤 HGK FHNW에서 미술학사를 마쳤고, 곧 브뤼셀 LUCA 미술대학에서 미술학 석사를 받게 된다. 마우러-빌레터 재단(Maurer-Billeter Foundation) 후원상을 받았고, 포어뎀베르게-길데바르트 재단(Vordemberge-Gildewart Foundation) 장학금 후보로 지명되었다. 부조리와 진솔함 사이를 오가며, 그녀의 작업은 팝컬처 미디어라는 렌즈를 통해 정체성을, 그리고 그것이 자아의 인식과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더 긴 작업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Wild Papers 편집자:임고 니어만

영어 번역: 박재용

영어 편집: 로산나 맥래플린

삽화: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국문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2026, Anina Müller, Eva Fàbregas & Wild Publishing,

a division of Institute Art Gender Nature at HGK Basel FHNW, Switzerland